ISSUE BRIEFING

2026 ISSUE BRIEFING Vol.356

반려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 동물혈액은행

연구책임 은성태 연구위원

연 구 진 이병훈 연구원

JTHINK

jthink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요약

국정과제 및 반려동물 정책과의 연관성

- 국정과제(80번: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에 언급된 공공 동물병원 조성과 공익형 표준수가제를 병행하여 공공 반려동물 혈액은행이 전국 공공 병원 혈액을 조달하는 핵심 기반이 될 수 있음
- 민간에 의해 공급되었던 혈액 공급 변동성과 수혈 시 지출되는 수십만 원대의 수혈 비용 안정화를 통해 보호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와 동물복지를 위한 정책 수행의 성과가 기대

반려동물 혈액 공급의 공공 주도 필요

- 국내 반려동물 건강을 위한 혈액 공급은 소수의 사설 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원거리 운송에 따른 지연과 혈장 공급 중단 사태로 인한 진료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음
- 공혈견·공혈묘의 열악한 사육 환경으로 인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정부의 지침은 권고 수준이며, 공급 혈액의 감염 여부와 생산 이력 추적을 위한 관리체계가 미흡함

공공 혈액은행 건립을 위한 법안 제정과 정책 수립

- 기존의 동물 혈액 공급과 관련한 지침은 강제력이 없고 관련 법안의 제정이 미비하여, 과잉 채혈에 대한 관리와 공급 혈액의 품질 유지를 위한 독립 법·제도가 부재
- 국가 전담 기관이 동물 혈액 이력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헌혈견·헌혈묘를 위한 검진비 지원과 헌혈 유인책을 병행해야 공급 안정과 생명 윤리 확보가 가능

공공 반려동물 혈액은행의 조성 추진과 전북의 연관성

- 영호남을 포함한 남부권 혈액 배송의 거점이 될 수 있고, 지역 동물용 의약품 생산·검증 기반과 수의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전북은 혈액은행 입지로 최적임
- 전북 익산에 조성 중인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를 통한 동물용 의약품 및 인공혈액에 관한 연구개발과 공급 혈액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가능함

공공 반려동물 혈액은행의 전북 건립 효과

- 반려동물 혈액 수급에 있어 2차 산업(혈액백·보존 장비·진단키트 등)의 새로운 수요와 인공혈액 등의 첨단 의약품 실증이 결합하여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내 기업 집적이 가속화
- 동물 혈액 수요 증가에 따른 지역 수의사 등의 전문 일자리 증가와 헌혈견을 동반한 반려동물 동반 관광 산업을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능

Ⅰ. 정부 반려동물 정책과의 연관성

국정과제 실현을 통한 동물복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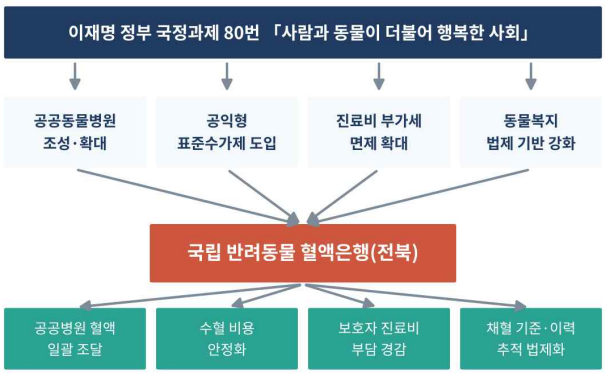
○ 사람과 동물이 함께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공공 동물의료 기반 확충 정책과 직접 연계

- 123대 국정과제 중 80번 과제에 언급된 공공 동물병원 조성과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에 관하여, 혈액 공급 역시 공공 동물의료 기반의 핵심축이라고 볼 수 있음
- 공공 동물병원이 증가할수록 안정적인 혈액 공급이 가능하므로 공공 반려동물 혈액은행은 전국 동물병원에서 필요한 혈액을 공급할 수 있는 핵심 지원기관이 역할을 할 수 있음

○ 진료비 부담 완화와 동물복지 법제 강화라는 정부 기조에 부합하여 관련 정책의 실행력을 높임

- 수혈 1회 비용이 수십만 원에 이르는 현실에서 공공 공급가를 적용하면, 표준수가제 설계 시 수혈 항목의 가격 안정과 보호자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음
- 동물복지 법제를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공혈 동물 채혈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정하면 동물복지 국정과제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

〈국정과제와 공공 반려동물 혈액은행 정책 연계〉



출처 : 데일리벳 (2026) 발췌하여 저자 정리

전북의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 정부의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 계획과 전북의 동물용 의약품 관련 산업 연계

- 2027년 시행 예정인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전북은 「반려동물산업 기본계획」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의료기기 중심의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음
- 익산의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와 전북대·원광대 등의 연구 역량을 활용하여 반려동물 혈액제제의 GMP 생산과 인공혈액에 관한 연구와 실증을 추진할 수 있음

○ 공공 동물병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정과제와 전북의 동물복지 관련 계획을 연계한 공공 혈액 공급 거점 구축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공공 동물병원을 지정하며 지역 거점 대학의 동물병원과의 연계를 검토하고 있어, 전북대 동물병원과의 연계를 통한 혈액 공급과 공공 진료의 핵심축으로 삼을 수 있음

Ⅱ. 반려동물 혈액 공급의 공공 주도 필요성

민간 소수 업체 중심의 동물 혈액 공급 구조에 따른 수급 불안

- 국내 동물병원에 유통되는 혈액 상당량은 강원·경기 소재의 사설 기업이 담당하고 있으며 남부에 있는 동물병원의 경우에는 배송의 지연으로 수혈 적기를 놓칠 위험이 큼
  -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 혈액 성분 제제의 의약품 관리 전환 직후 혈장 공급이 중단되어 중증 반려동물 치료에 차질이 생기는 등 단일 공급원 의존 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남
  - 공급 경쟁이 제한된 시장에서 반려동물 보호자는 수혈 1회에 수십만 원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공공 공급원 확보를 통한 가격 안정과 접근성 개선이 요구됨

상업적 공혈 동물 사육 형태로 인한 동물복지 훼손 논란과 공공 감시 필요성 대두

- 2015년 약 300마리의 개와 약 60마리의 고양이가 뜬장과 잔반 급여 등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반복적으로 채혈된 실태가 공개되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킴
  - 현행 정부의 관련 지침은 권고 수준에 머물고 현장 점검도 이뤄지지 않아, 혈액의 감염 여부와 생산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공공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대안으로 제기됨
  - 공혈 동물이 평생 채혈을 위해 살아가는 구조 자체는 변하지 않아, 헌혈 중심 공공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

정부의 감독 공백으로 혈액 안전성과 생산 이력을 확인할 수 없어 공공 주도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함

- 사람의 혈액을 적십자사가 관리·추적하듯 동물 혈액도 농림축산식품부나 검역본부 산하의 중앙 관리 기관을 두어 감염 여부와 생산 과정을 추적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있음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한현정 교수는 국내 최초로 대학 산하의 반려견 헌혈센터를 설립하여 사설 업체에 의존하던 동물 혈액 공급 구조를 윤리적 헌혈 체계로 전환
  - 대한수의사회 및 임상 수의계 전문가들은 사설 혈액 은행의 공급 중단 사태에 따른 국가의 공적 개입을 통한 동물 혈액 관리체계 표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

동물 혈액의 채혈부터 공급까지 규율하는 독립 법률이 없어 공혈 동물보호와 혈액 품질관리 공백이 존재

- 2016년 보호·관리 지침과 2023년 생산·유통 지침 모두 법적 강제력이 없어 과도한 채혈이 발생해도 제재하거나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함
  - 동물 혈액 판매업 신설안(2016), 동물 혈액 관리업무 규정안(2023) 등 관련 법 개정안 발의되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수의사법 및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동물 혈액 관리업무'를 수의사법에 명문화하여 시설·장비 기준, 동물 혈액 매매 금지, 유기동물 채혈 금지 등의 법안들이 논의

Ⅲ.국내외 반려동물 혈액 공급·수요 현황

1. 국내 현황

반려동물 혈액 수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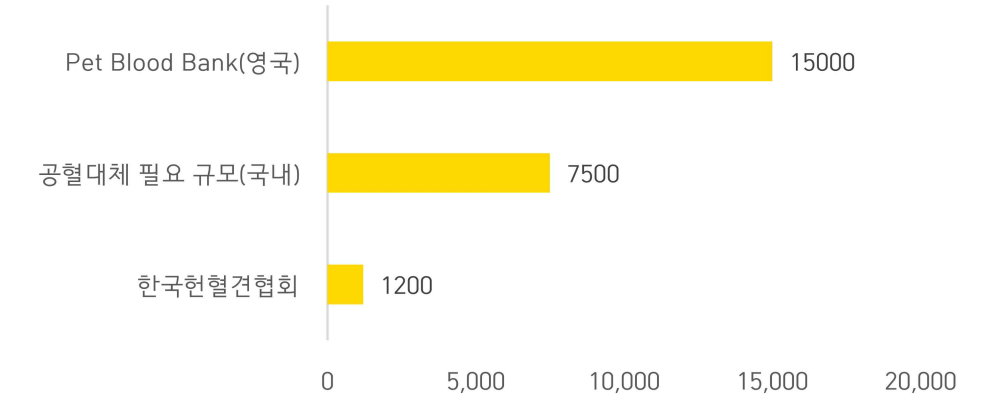
- **반려동물 양육 규모가 꾸준히 커지면서 수술이나 응급 처치에 쓰이는 혈액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 2025년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는 867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2%이며, 정부의 추계로는 반려견이 80.5%, 반려묘가 14.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반려동물 수술 시 체중 1kg 당 10~15㎖ 내외의 혈액이 필요하며, 현재 연간 약 3만 마리 수혈분이 필요함
- **헌혈에 기반한 공급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수요 일부만 메우고 있어 공혈 동물 의존 구조가 지속**
  - 한국헌혈견협회 등록견은 출범 당시 30마리에서 약 1,200마리로 늘었지만, 공혈 물량을 대체하는 데 필요한 7,500마리의 16%에 그치고 있음
  - 협회 협약 병원 기준으로 하루 필요 혈액 40팩 가운데 헌혈로 들어오는 양은 4팩 정도에 불과하며, 대학병원 헌혈센터의 경우에는 주로 수도권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국내 주요 반려동물 혈액 공급 주체 현황〉

구분	기관	공급 방식	현황
민간	한국동물혈액은행	자체 공혈 동물 사육·채혈	국내 주요 공급원 (2026년 혈액제제 품목허가)
민간	세이브더펫	동물용 혈액제제 제조	2026년 국내 첫 농축 적혈구·혈장 품목허가
병원	건국대 KU 아임도그너 헌혈센터	보호자 반려견 헌혈	2022년 개소, 지역 동물병원 혈액 공급
병원	경북대 아임도그너 헌혈센터	보호자 반려견 헌혈	개 헌혈
병원	VIP동물의료센터 헌혈수혈센터	보호자 반려동물 헌혈	개·고양이 헌혈
비영리	한국헌혈견협회	헌혈견·병원 연계	등록견 약 1,200마리, 협약 병원 20곳

출처 : 데일리벳 (2022), 동물자유연대 (2025), 조선일보 (2026) 발췌하여 저자 정리

〈헌혈견 등록 개체수 현황 : 국내와 해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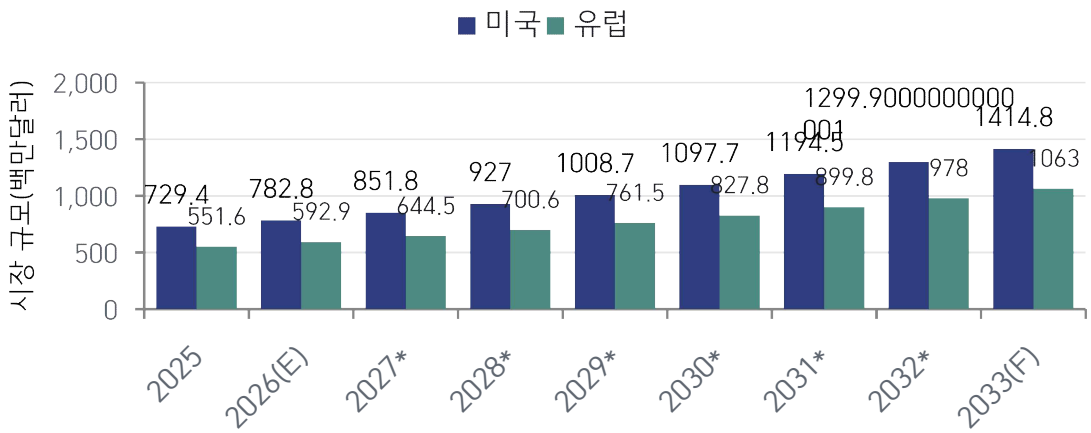
출처 : 조선일보 (2026), Pet Blood Bank (2026) 발췌하여 저자 정리

2. 해외 현황

영국(비영리 자선단체)과 미국·일본(민간기업과 병원 단위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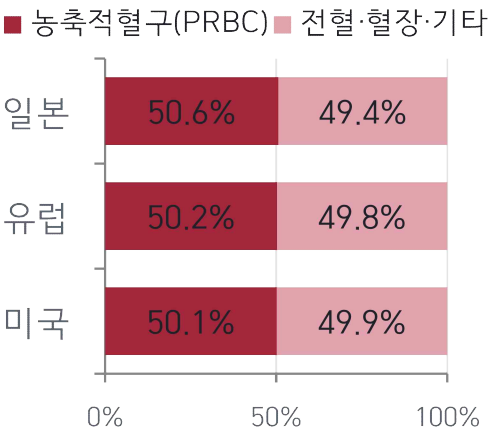
- **영국은 비영리 자선단체에 의해 전국 단위 헌혈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동물병원에 혈액을 공급하는 체계를 갖춤**
  - 영국의 동물혈액은행 (Pet Blood Bank)는 2005년 법령에 따라 동물 혈액의 보관이 허용된 후 2007년 시작되었고, 2026년 현재 15,000마리의 헌혈견이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음
  - 동물혈액은행은 연간 3천 단위 이상을 채혈해 적혈구와 혈장으로 분리한 뒤 전국 각지의 동물병원으로 보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헌혈 참여가 부족한 경우에는 긴급 헌혈견을 모집함
- **미국과 일본은 민간기업과 개별 병원 단위의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공급 수단을 활용하지만 수요 대비 혈액 부족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음**
  - 미국은 ABRI (Animal Blood Resources International), Hemopet과 같은 상업 혈액은행이 공급을 맡고 있으며, 일부는 상주 공혈견 사육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동물단체로부터 복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일본은 적십자 형태의 중앙 혈액은행이 없이 병원별로 자체 공혈견과 반려 가구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대고 있어, 수의사회 차원의 혈액은행 설립 의견이 공식적으로 나온 적이 있음

〈미국과 유럽의 반려동물 혈액 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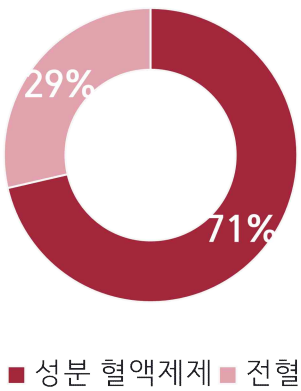


출처 : Grand View Research (2026) 발췌하여 저자 정리

〈2025년 혈액 부문별 매출 비중〉



〈세계 반려동물 혈액 부분별 비중〉



출처 : Grand View Research (2026) 발췌하여 저자 정리

Ⅳ. 공공 반려동물 혈액은행 전북 건립 필요성

1. 연구와 생산 기반

전북 동물용 의약품 클러스터

○ 전북은 영호남 지역 동물병원으로 혈액 공급 및 전국 단위 공급이 가능한 거점이 될 수 있음

- 현재 민간 공급처가 강원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있어 영호남 지역 동물병원으로의 혈액 공급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남부권에 공공거점이 생기면 혈액 공급 공백을 줄일 수 있음

- 지역에 있는 광역 교통망을 적극 활용하면 냉장 혈액의 당일 공급 범위를 전국 단위로 넓힐 수 있어 수혈의 골든 타임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

○ 동물용 의약품 연구와 생산 기반이 모여 있어 혈액제제 제조와 품질검증을 한 곳에서 연계

- 혈액 성분 제제가 동물용 의약품으로 관리되면서 GMP 생산과 효능 평가 설비가 필수 요건인데 익산의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가 대안이 될 수 있음

- 전북대·원광대 등이 관련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어 헌혈견 대상 건강검진과 혈액은행 운영 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음

2. 지역 자원 활용

익산의 동물용 의약품과 임실의 헌혈 문화

○ 익산의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 개발 전주기 지원

- 총 1,470억 원 규모로 조성되는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내에 효능·안전성 검증센터('24년 준공), 시제품 생산시설('26년 예정) 포함 임상시험센터와 바이오 팩토리, 그리고 벤처 타운 조성을 예정하고 있음

- 2027~2030년 약 264억 원 규모의 규제 실증 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의약품 관련 기업 9곳이 입주하여 바이오 의약품의 상용화를 위한 산업 기반이 강화되고 있음

○ 임실의 공공 장묘·교육·관광 시설을 갖춘 반려동물 특화 지역으로서 헌혈 문화 확산 중심지 부각

- 공공 반려동물 장묘 시설인 '오수 펫 추모 공원'이 2021년 개장했으며 현재 반려동물 지원센터 및 보호자와 반려동물이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조성되어 있음

- 2026년 제41회를 맞는 임실 오수의견 문화제를 통해 의견이라는 정체성에 따른 희생을 헌혈 캠페인과 연계 가능성이 높음

〈전북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사업 개요〉

구분	사업기간	사업비(억원)	사업 구성
동물용 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2020~2023년 (2024년 준공)	250억 원	품목허가에 필요한 효능·안전성 평가, 임상시험·비임상시험 등 국가 지정 획득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2023~2026년 (2026년 준공 예정)	300억 원	연구용 시료를 파일럿 배지로 전환, 후보물질의 시료 생산·제형화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센터	2026~2029년 (2027년 착공 예정)	300억 원	임상(1~3상) 수행, 인허가 컨설팅 및 교육, 동물임상시험 표준화 신뢰도 확보
동물용 의약품 바이오 팩토리	2027~2030년 (국가 예산 심의중)	300억 원	병원체·생체자원 데이터 및 소재 공급, 국가 감염병 대응 자원 플랫폼 기능
동물 헬스 벤처 타운	2027~2030년 (기본계획 수립 중)	320억 원	기업 입주, 연구·평가·생산 성과를 지역 매출과 고용으로 전환

출처 : 전북자치도 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 (2023) 발췌하여 저자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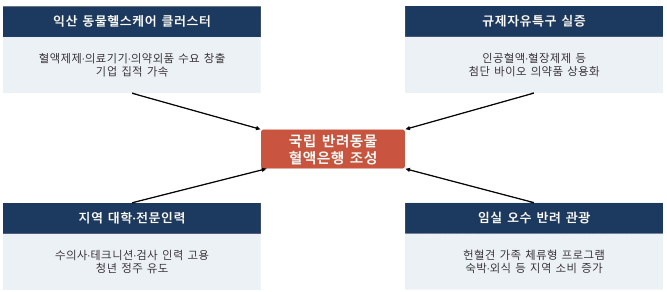
Ⅴ. 공공 반려동물 혈액은행 조성 기대효과

반려동물 혈액은행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전북의 연구와 인력 기반 활용

- **공공 반려동물 혈액은행 조성은 전북의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수요 기반을 넓혀 관련 기업을 집적화함**
  - 혈액 분리·보존 장비와 혈액백, 진단키트 등 의료기기·의약외품 수요로 인해 도내 동물헬스케어 관련 기업 판로 창출과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음
  - 인공혈액과 혈장제제 등 첨단 바이오 의약품 연구를 규제자유특구 실증과 연계하여 기술 상용화와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탄탄히 다질 수 있음

- **수의 전문인력 고용과 헌혈 캠페인과 관광 수요를 연계하여 지역 일자리 확대와 체류형 경제 활성화 기여**
  - 수의사를 포함한 검사 인력 등 전문직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지역 대학 졸업생의 정주를 유도하여 청년 인구의 외부 유출을 완화하는데 보탬이 될 것임
  - 헌혈견 가족이 지역 내 반려동물 동반 관광지를 찾는 체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숙박과 외식 등 지역 소비가 늘어나는 경제적 파급 효과로 연결됨

〈공공 반려동물 혈액은행 파급 효과〉



출처 : 데일리벳 (2025), 서울신문 (2024) 토대로 저자 정리

참고 문헌

공라경 외. (2017). 반려견 수혈에 대한 인식개선 및 헌혈유도 서비스 시스템 제안. 한국디지안학회.

동물자유연대. (2025). 다른 생명을 위해 피 뽑히는 동물들. 동물자유연대.(2025.03.21.).

윤상준. (2023). '반려동물 헌혈기부문화 장려' 동물보호법 개정안 나와. 데일리벳. (2023.03.17.).

윤상준. (2025).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공공동물병원, 공익형 표준수가제, 상생동물병원'. 데일리벳.(2025.08.21.).

이학범. (2026). 전북, 1470억 투입하는 동물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완성…'규제자유특구' 지정. 데일리벳.(2026.07.24.).

한영원. (2026). 반려동물 1500만 시대…'동물 혈액 공급'은 여전히 사설업체 의존. 조선일보.(2026.05.29.).

Relph, N. (2024). Inside the life-saving world of canine blood donors. National Geographic. (2024.12.20.).

Vol. 356

ISSUE BRIEFING

JTHINK

jthink Jeonbuk State Institute

발행인 최 백 렬　　발행처 전북연구원

※이 이슈브리핑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북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